

취업성공후기

학번	202020****(4학년)	취업기관명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이름	00민	외국어점수	
학점		동아리활동	누리보듬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023.08.01~2023.08.10) (4학년 1학기 성적까지 포함, 총 7학기 + 공익영어성적은 우대) 2차 면접 (5:5) (2023.09.12~2023.09.15) (성빈센트 면접은 대부분 인성면접) 3차 신체검사 (개별연락) (예비합격도 있음, 예비합격까지 총원된 후, 12월부터 상반기 입사자에게 개별연락 옴) ※ 2024년도 신규간호사 모집 기준 30명대까지 예비 합격자 선발		
취업기관의 미션 및 비전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병원 소개(미션&비전) https://www.cmcvincent.or.kr/hospitalinfo.greeting.sp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간호부(미션&비전) https://www.cmcvincent.or.kr/page/department/support/part_nurses		
취업기관이 원하는 인재상	CMC 인재상/비전 https://recruit.cmcnu.or.kr/cmcvincent/contents/view.do?menuCd=001001		
면접 시 질문	<질문> 1. 1분 자기소개(공통) 2. 지원서에 작성했던 워터드 부서(1지망)/비희망부서 각각 얘기하고, 그 이유 3. 실습했던 병원 → 지원서에 작성했던 실습병원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꼬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타 지원자 면접 질문> 1. 자기소개서 개인 꼬리 질문 2.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 & 극복 사례 3. 부모님께 죄송했던 경험 4. 타인을 위해 희생한 적이 있는지 5. 왜 간호사란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 6. 취미, 특기 7. 병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 것 같은지, 병원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실습 때 힘들었던 점 8. 병원에 환자가 많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9. 병원 실습하면서 존경 또는 닮고 싶은 간호사가 있었는가		

10. 슬럼프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11.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간호사의 자질
12. 성빈센트병원의 장, 단점
13. 연고지 질문
14. 본인의 대인관계는 어떤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15. 자신이 성빈센트병원의 간호사가 된다면 지킬 공약 3가지
16. 간호사로서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
17. 가장 최악의 간호사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18. 같이 일하고 싶은 간호사/같이 일하기 싫은 간호사

<면접 분위기>

1. 면접 대기

저는 면접 2일째, 1번째 타임이었습니다. 아침 8:30 타임이라 일찍 도착해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밖에 준비가 다 되면 신분증 확인을 한 후 수험표를 배정받아 대기실 안으로 들어가 대기합니다. 이때, 지원서에 적힌 수험번호와 면접 때 수험번호는 다릅니다. 지원서에 적힌 수험번호로 연습하여 면접장에 들어갔다가 실수하시는 지원자들도 많았습니다.

인사팀 직원분께서 각 타임 별 조를 현장에서 나눠주십니다. 저는 4조였고, 조원끼리 처음 들어가서 인사, 면접이 끝난 후 나올 때 인사를 미리 연습할 시간을 주십니다. 자기소개 시 첫 줄은 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부 간호사 모집에 지원한 수험번호 000, 000민입니다.”

시간이 되면 해당 조를 호명합니다. 면접장 앞에서 10분 정도 대기 후 들어갑니다. 인사팀 직원분께서 긴장되는 분위기를 풀어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십니다. 덕분에 다들 긴장을 풀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 면접

면접은 5:5였고, 앞에 테이블이 있어 안정감 있었습니다. 한 조당 평균 15분 정도 면접을 봅니다.

인사팀장님께서 처음에 긴장을 많이 풀어주시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진 후 면접을 시작합니다. 1번 순서부터 차례대로 1분 자기소개를 시작합니다.

개인 질문을 할 때도 1번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빈센트병원의 면접 분위기는 매년 좋다는 후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면접을 봤을 때 면접 분위기는 정말 편하고 좋았습니다. 면접자가 실수를 해도 다른 질문으로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더듬어도 끝까지 웃으며 들어주시니 천천히 또박또박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면접 후

면접이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꼭 제출 서류를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고 가세요. 성적증명서는 꼭 원본으로 들고 가져야 합니다. 간혹, 사본으로 제출하시는 지원자들이 있어 면접 첫날 혼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옆에 면접 확인서가 놓여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시간이 지나면 면접 확인서는 제공 불가라고 합니다.

<면접 TIP>

면접은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 틀리더라도 만회할 기회를 주시니,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 보세요. 면접 분위기는 위에 작성한 것처럼 정말 좋은 편입니다. 다들 웃으면서 들

	<p>어주시고, 잠깐 버벅거리어도 차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타 지원자들은 외운 것을 말하기 바빠 말이 빨라지거나, 내용을 잊으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면접관분들과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해서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처 능력이 발휘되었던 것 같습니다.</p> <p>또한, 생각보다 1분 자기소개부터 많이 버벅거리는 지원자들도 많습니다. 1분 자기소개는 '나'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완벽하게 해내는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너무 빠르면 천천히 하라고 다시 시키십니다. 천천히 또박 또박 말하는 연습 하세요.</p> <p>※ 면접 준비</p> <p>성빈센트병원은 서류 합격이 되면 보통 2주 후 바로 면접을 봅니다. 성빈센트병원은 거의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인성 기본 질문부터 시작해 처음에는 답변을 완벽하게 하는 연습보단 각 질문의 키워드를 연상시키고, 그다음 완벽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시면 더 수월하고 빠르게 면접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p>
<p>본인이 생각하는 합격이유</p>	<p>[서류]</p> <p>자기소개서에 최대한 본원의 인재상, 미션&비전, 핵심가치에 맞춰서 작성하였습니다. 성모 자소서는 정말 자소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성모 자소서를 잘 써두면 다른 타 병원도 쉽게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p> <p>저는 공고가 뜨기 한참 전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다 작성하였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쓰셔야 첨삭할 기회도 많고, 내용이 잘 다듬어집니다.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 학년/학기 별로 내가 했던 활동과 그 활동에서 느낀 점을 쪽 나열하면서 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할 것인지 정하고, 한 질문 당 한 사례로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얇게 여러 사례를 작성하는 것보다 한 사례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더 진실성 있어 보이고 합격 확률을 높인다고 생각합니다.</p> <p>다 작성하시면 교수님, 부모님, 친구들 여러 사람에게 첨삭을 받아보세요. 자소서의 내용이 점점 더 깔끔해집니다. 자소서를 작성하기 막막한 분들은 매년 '간준모' 카페에서 겨울방학부터 봄 시즌까지 자기소개서 작성 무료 특강을 합니다. 신청하셔서 자소서의 틀을 잡아보세요.</p> <p>채용공고 날짜가 지나면 성모 계열은 다시 지원서를 볼 수 없습니다. 면접 때 생각보다 이력서 관련해 많이 물어보니, 제출하시고 꼭! 뽑아주세요. 함께 면접에 들어갔던 조원들이 이력서에 작성한 원티드 부서를 많이 틀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틀려 저는 여기서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p> <p>[면접]</p> <p>저는 면접 전 인데놀을 먹고 들어갔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적당히 긴장한 상태로 면접을 보았는데 너무 떨릴 것 같으면 인데놀 추천드립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면접 전날이나 면접이 있는 주에 꼭 한 번 먹어보세요.</p> <p>인성 면접은 무슨 질문이 나올지 예상이 안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기본 인성 질문을 쪽 타이핑 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키워드로 적어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길게 답변을 다 적으면서 면접 준비를 하면 시간이 부족합니다.</p> <p>면접 준비할 때 가능하면 면접스터디 꼭 참여하세요. 보통 서류 합격 오픈카톡방에서 지역별로 모집하는데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면접 준비를 하면 처음에 적당한 긴장감도 생기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와서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p> <p>[기타]</p>

4년 동안 꾸준히 학년 대표와 동아리 부장을 해왔습니다. 스스로 학교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만 했다면 얻을 수 없었던 여러 경험과 지혜를 쌓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담았고 **성실함, 끈기,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최종 합격까지 이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성빈센트병원의 서류합격자 중 성적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정말 '성실함'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1학년 때는 나와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올리는 것에 무한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7학기 동안 한 번도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상위권까지 성적을 올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성적이 낮다고 좋은 병원을 포기하는 학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뭐든 할 수 있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며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병원에서는 그런 성실한 사람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취준기간 뭐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국 제 대 학 교 간 호 학 과